

## 예술을 미끼로 선동하는 올란다 로페스

유 화 열

예술가이자 영화프로듀서 올란다 로페스(Yolanda López, 1942년 생)는 우리에게 낯설지만, 미국에서 활동하는 히스패닉 아티스트 중에선 꽤나 유명하다. 올란다 로페스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것은, 자신이 과달루페 성모로 나타난 자화상이었다. 운동화를 신고서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천방지축 거리를 활보하는 과달루페 성모는 우리가 알아왔던 종교적인 이



캘리포니아 출신의 예술가, 올란다 로페스

미지와는 아주 달랐다. 그동안 제단 속에서 사람들의 고통을 보듬어주던 숭고한 역할에 염증이라도 난 걸까. 작가 올란다 로페스는 과달루페 성모가 갖는 고정관념의 틀을 과감히 깨뜨리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과달루페 성모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작가는 재봉사인 어머니를 위해, 평생토록 일만해서 주름살이 깊게 패인 할머니를 위해 과달루페 성모로 나타난 초상화를 그렸다. 우리 이웃의 모습으로 나타난 과달루페 성모 이미지는 수많은 히스패닉 여성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작가는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혹시 당신도 과달루페 성모와 같이 제단 속에 스스로를 가둬놓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올란다 로페스에게 예술이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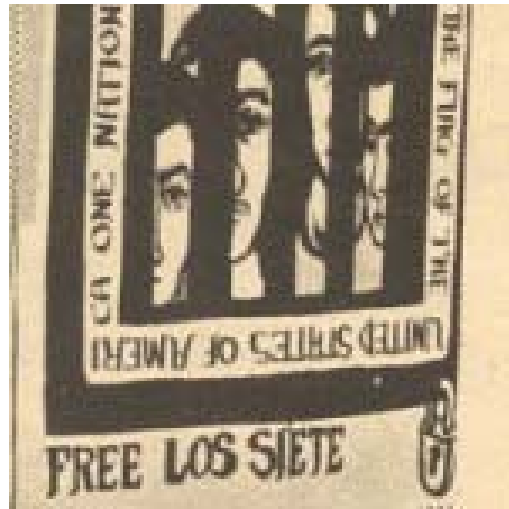
기 위한 도구였다. 그녀 자신이 ‘예술가로서 나는 예술적 미끼’라고 말하듯이.

###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의 학생 파업이 그녀에게 남긴 것

올란다 로페스는 1942년에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세 딸 중 맏이로 태어났다. 그녀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에는 늘 가족이 있다. “우리 세 자매는 어머니, 그리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우리 집은 언제나 북적거렸고, 시끌벅적했어요. 동생들과 나는 엄청난 왈가닥에다가 수다쟁이였거든요. 우리 동네엔 우리 집처럼 3대가 함께 사는 멕시코계 미국인 가정이 많았어요. 모두 다 이민 온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외할아버지도 맨 처음에는 뉴욕에서 재단사로 일하다가 이곳 캘리포니아에 자리를 잡으셨대요.”

올란다 로페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가족은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했는데, 그곳에서 일생일대에 잊을 수 없는 일을 경험했다. 1968~69년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교에서는 대학신문에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에 대한 모욕적인 기사가 실린 것이 발단이 되어, 치열한 학생 파업이 일어났다. 학생들은 거리에서, 강의실에서 어디서든 인종을 이슈로 한 토론이 펼쳐졌는데, 올란다 로페스는 그때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흑인에게 가해졌던 온갖 부조리와 압제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들 감정이 격앙되어 있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새겨듣다보니, 내 안에서 용솟음쳐 올라오는 뭔가가 느껴졌어요. 거대한 소용돌이 같은 것이 단숨에 내 삶을 삼켜버렸는데, 그것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나는 치카노를 위한 공공미술가가 됐어요.” 파업을 목격하기 전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멕시코계 미국인의 정체성이나 치카노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없었는데…….

그 무렵 멕시코계 미국인 사회가 발각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다. 일곱 명의 청년들이 잠복하던 경찰관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어떻게든 구명운동을 벌이려고 ‘로스 시에테 데 라 라사’(Los Siete De La Raza) 미술그룹이 결성됐다. “나는 무엇에 이끌리기라도 한 듯, 생각할 것도 없이 그룹에 들어갔어요. 이 그룹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그림을 그려야하며, 시각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입장이 아주 명확했어요. 매 순간마다 너무나 흥미로웠고, 정말이지 그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주 많았어요. 내가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오롯이 그들을 통해 배양된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일이 있고나서 올란다 로페스는 1970년에 샌디에이고 주립대학의 미술대학에 입학해, 1975년에는 회화와 드로잉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고, 이어 1979년에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올란다 로페스, 〈일곱 명의 젊은이를 석방하라〉(Free Los Siete, 1969) 로스 시에테 데 라 라사 그룹이 구명운동을 위해 제작한 포스터

## 여자들의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안 난다

미술대학에서 그녀가 몰입한 주제는 여성에 관한 것이었다. “나에게 자연스럽게 와 닿았던 주제는 여성이었어요. 나와 같은 여성에 대해 생각하다보면 힘들이지 않고도 아주 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대학 때 했던 작업 중에 아주 마음에 드는 시리즈 작업이 있어요. ‘여자들의 일은



올란다 로페스, <내니>(The Nanny, 1994), '여자들의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안 난다' 시리즈, 혼합 매체 설치작품

해도 해도 끝이 안 난다'(Woman's Work is Never Done)인데, 제목에서 훤히 드러나듯이 여자들이 하는 일이 사실 그렇잖아요.”

여성과 노동에 대해 생각할수록, 올란다 로페스는 지독히도 냉정해지면서 집중이 아주 잘됐다. 현실적으로 히스패닉 이주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녹록치 않은 삶이었다. 가족은 물론 친구들도, 이웃들도 일을 해야만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 설치작품 <내니>(The Nanny, 1994)는 간호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노동집약적인지를, 간호사가 사용하는 수많은 물건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운 호주머니에 꽂혀 있는 각종 집기를 비롯해 바구니에 널브러진 수많은 위생용품은, 간호사의 손길이 닿아야만 제 기능을 하는 것들이다. 올란다의 예술적 탐구는 이렇게 자신과, 주변의 여성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찾아낸 것이었다.

## 일하는 여성이야말로 과달루페 성모다



올란다 로페스 <나는 과달루페 성모다>(Portrait of the Artist as the Virgin of Guadalupe, 1978), '과달루페' 시리즈, 종이에 오일파스텔, 56x76cm. 멕시코계 미국인 여성의 체험에 초점을 맞춘 '과달루페' 시리즈는 인종적인 편견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작품이다.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과달루페’ 시리즈가 떠올랐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과달루페 성모는 라틴아메리카 어느 곳에서든지 가장 근본이 되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녀가 갖는 이미지에 의문에 생긴 거예요. 과달루페 성모가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너무 일방적인 것은 아닐까. 우리와 같은 피부색이고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한없이 인자하고 자애로울 수가 있는 건데……. 뭔가 답답하고 이걸 아는데 싶었어요. 도무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내 마음대로 각색하기로 마음먹었지요.”

<나는 과달루페 성모다>(Portrait of the Artist as the Virgin of Guadalupe, 1978)에는 그녀 자신의 모습을 기존의 과달루페 이미지에 끼워 넣고서, 건강하고 활기찬 현대여성으로 변신시켰다. 과달루페 성모가 된 화가 자신의 자화상인 셈이다. 신나고 경쾌한 발걸음만큼이나, 보는 이로 하여금 숨 막히는 사회적 과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하는 작품이다.



올란다 로페스 <과달루페 성모가 된 우리 어머니, 마가렛 F. 스튜어트>(Margaret F. Stewart: Our Lady of Guadalupe, 1978), '과달루페' 시리즈, 종이에 오일파스텔, 56x76cm



올란다 로페스 <과달루페 성모가 된 우리 할머니, 빅토리아 F. 프랑코>(Victoria F. Franco: Our Lady of Guadalupe, 1978), '과달루페' 시리즈, 종이에 오일파스텔, 56x76cm

1978년에 이뤄진 '과달루페' 시리즈 중에는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자, 올란다 로페스가 몹시도 아끼는 작품이 있다. 올란다 로페스의 어머니는 항상 재봉틀에서 일만 했는데, 가족을 위해 그 정도로 희생했으면 과달루페 성모와 다를 바 없다고 여겼다. 미술사에서, 특히 서양미술사에서 여성은 정적인 아름다움을 대변해왔고, 많은 이름 있는 화가들은 일부러라도 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고안했다. 하지만 올란다가 어머니를 일하는 여성으로 묘사한 것은, 그런 전형적인 아름다움과는 다른 것이었다. 가냘픈 백색피부도 아니고, 매력적인 몸매도 아니지만, 여성의 노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과달루페' 시리즈에서 보여주고 있다. "성모로서 우리 어머니를 그렸어요. 재봉틀을 돌리며 옷을 짓는 모습이었죠. 나는 일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말로

만 하는 노동의 미학이니, 이런 찬사 말고요, 실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노동의 모습 말이예요.”

올란다 로페스는 이어 할머니의 모습도 ‘과달루페’ 시리즈에 합류시켰다. 그림 속 할머니는 세월이 장사 없다고 등도 굽고, 주름도 깊게 패었다. 작가는 나이 듦이란 젊음에 대한 상대어도 아니며, 쇠락이 아님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우리 할머니를 그렸어요. 과달루페 성모는 늘 아름답고, 젊게만 재현되고 있잖아요. 과달루페 성모도 나이가 들 텐데, 왜 할머니가 된 모습은 재현되지 않는 걸까요. 나는 이 점에 대해 의식했고, 그래서 정직하게 나이 듦 그 자체에 의미를 둔 우리 할머니를 그렸죠.” 올란다는 모든 드로잉에 각각의 제목을 붙이면서, 여성 개개인이 갖는 유일무이함을 강조했다.

올란다 로페스가 과달루페 성모를 그린 것은, 그녀 인생에서 정점을 찍은 일이었다. “아마도 내 이름이 작가로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순전히 ‘과달루페 성모’ 시리즈 덕분일 거예요. 이 작품이 이렇게까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킬 거라고 어느 누가 예측했겠어요? 그 덕에 저는 국제적인 유명 인사가 됐을 정도니까요.”

‘과달루페’ 시리즈는 미국에 사는 히스패닉은 물론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여성을 향한 거대한 메시지가 되었다. “이 시리즈는 나와 같은, 보통의 멕시코 여성을 표현한 거예요.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 고정관념을 깨버린 것에 있겠죠. 모두가 당연히 믿고 있듯이, 과달루페 성모는 숭고한 존재잖아요. 이런 신성한 이미지를 우리의 모습으로 끌어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고 과달루페 성모님이 우리처럼 가사 노동을 하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다고 다들 난리였어요. 물론 과달루페 성모에 대한 신앙심이 돈독한 분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평하기도 했지만요.”

올란다 로페스는 최근에 <미디어에서 멕시코인의 이미지>(Images of Mexicans in the Media)라는 비디오아트를 선보였다. 여지없이 그녀의 불만은 계속해서 제기됐는데, 이번에는 미디어에서 멕시코사인과 라틴아

메리카인이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시선에 대한 것이었다. “미디어는 미국 현대사회에서 문화로 통하는 문제이며, 극도로 강렬하다. 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멕시코인과 라틴아메리카인의 문화적으로 잘못된 정의를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율란다 로페스가 예술이라는 미끼를 사용해, 외치고 싶은 것은 의외로 아주 간단한 문제다. 우리를 무시하지도 말고, 함부로 대하지도 말라는 것이었다.

율란다 로페스는 오늘날 예술가로서, 교수로서 활약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비롯하여 여러 스튜디오에서 현대 치카노 미술을 강의하고 있으며, 샌디에이고의 치카노 공원에서 벽화작업을 하는 고등학생들의 멘토로서 활동하고 있다.

### 참고자료

Karen Mary Davalos, Yolanda Lopez,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9.

<http://latinopia.com/latino-art/yolanda-lopez/>

[http://mati.eas.asu.edu/ChicanArte/html\\_pages/lopez11.html](http://mati.eas.asu.edu/ChicanArte/html_pages/lopez11.html)

유화열 -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의 LLILAS에 방문학자로 있으며, 저서로는 『라틴현대미술, 저항을 그리다』, 『예술에서 위안 받은 그녀들』이 있다.